

## 땅·하늘·바다가 알려주는 자연현상



### 산책자들을 위한 자연수업

트리스트랄 쿨리 지음  
김지원 옮김

자연이 보내는 단서와 신호로 상황을 예측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관찰력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훨씬 근사하게 이어준다.

20년에 걸친 야외 탐험과 6년간의 연구로 밝혀낸 자연 탐험 기술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여기에는 땅, 하늘, 바다, 식물과 동물 등이 알려주는 자연 현상 850가지가 망라돼 있다.

5대 대륙 원정을 이끌었고 자연 내비게이션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트리스트랄 쿨리가 펴낸 '산책자들을 위한 자연수업'은 자연의 흔적들과 친해지는 법 등을 담고 있다.

땅, 하늘, 식물과 동물들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산책하는 이들이 이런 특성을 안다면 훨씬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달팽이가 껍질을 만들려면 다량의 탄산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못 근처에 달팽이가 있다면 석회암 지역이라는 증거이다."

"행성은 평균적으로 별보다 더 밝기 때문에 해 질 무렵 별보다 훨씬 먼저 볼 수 있고, 새벽에는 별보다 오래 남아 있다. 저녁 하늘에 밝은 물체가 보이지만 다른 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행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저자는 자연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 다야 족과 특별한 도보여행을 했다. 보르네오 제도에는 200개가 넘는 부족이 살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쳐 다야 족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일부러 현대 사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저자가 다야 족과 함께 했던 특별한 산책은 흥미롭다.

책에는 도보여행자를 위한 유용한 기법 등도 소개돼 있다. 예리한 감각에 기대는 법, 별이나 달을 이용해 남쪽을 찾는 법, 거리, 높이, 각도 계산하기 등 자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곤충들은 냉혈동물이라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다. 귀뚜라미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온도대 대응으로 쓸 수 있다. 종마다 온도에 따라 우는 것이 다른데, 섭씨 13도에서는 1초에 한 번 우는 게 일반적이고,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 곤충의 울음소리에 익숙해지면 울음소리의 횟수가 기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케이북·1만9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20년만에 재출간 된 중남미 시단의 거장 시선집



### 오늘처럼 인생

세사르 바예호 지음  
고혜선 옮김

세사르 바예호(1892~1938)는 파블로 네루다와 함께 20세기 중남미 시단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시인이다. 체 게바라가 가장 많이 필사한 시인으로도 알려진 그는 생전에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 그러나, 뜨거운 가슴에 들뜨는 존재"라는 말을 남겼다. 1998년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지요'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첫 소개된 후, 그의 시들은 독자들과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절판된 후에는 중고가가 출간 당시 10배 이상으로 오를 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년 만에 재출간된 시선집 '오늘처럼 인생이 싫었던 날은'은 '희망에 대해 말씀드

리지요'에 수록된 시들을 다듬고, 번역되지 않은 시들을 추가로 번역했다. 122편의 시가 수록된 작품집은 세사르 문학의 정수라고 일컬을 만큼 주옥같은 시들이 담겼다. 세사르 시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삶에 대한 비극적 시각이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학업을 위해 가족을 떠났던 고아 아닌 고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 파리로 향한 도망, 가난과 싸운 젊은 시절 등 삶 자체가 '불우한 문학'이었다.

그러나 세사르는 자신의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신에게서 버림받은 인간,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형성한다. '일용할 양식'은 대표적인 시다. "문이란 문은 모두 두드려/ 모르는 사람 일지라도 안부를 묻고 싶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모두에게 갓 구운 빵 조각을 주고 싶다."

<다산책방·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현대인은 왜 '추한' 것에 끌릴까

### 더 어글리

그리첸 E. 헨더슨 지음  
임상훈 옮김



"당신의 육체에서 가장 추한 부분은 어디지? 당신의 육체에서 가장 추한 부분은 어디지? 어떤 사람은 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엔 당신의 정신이 가장 추해..."

프랭크 자파라는 미국의 록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일부다. 정곡을 찌른 표현이다. 다른 무엇보다 정신이 추하다는 것은 문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미이겠다.

사실 현대인들은 온갖 '괴물'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그 괴물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워킹데드' 등에 등장하는 좀비에서부터 '에일리언'이나 '프로테지' 등 인간을 포식하는 외계 생물체, 동화를 전복시킨 조롱 괴물 '슈렉'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우리를 끌어들이며 지갑을 열게 한다.

'엔트맨'에서 주인공 딸은 선물로 받은 인형을 보고 기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정말 어글리해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의외로 사람들은 '추한' 것에 끌린다.



'호기심에 가득차 황홀경을 추구하는 사람들'. 호텐토티 비너스를 구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캐리커처. 1815년 판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추'라는 것은 기존의 체제에 흡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추'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순간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비껴서서 그 의미를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다. 조지대학 영문과에서 강의를 하는 그레첸 E. 헨더슨의 '어글리'는 추의 대중화 현상을 비롯해 문화적 측면을 짚어본다.

추천사를 쓴 매머리 대학 석좌교수 샌더 L. 길먼은 "추라는 건 보는 사람 마음이다. 과연 그런가? '더 어글리'는 질문

을 던지고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며 "추는 문화적 구성물인가 아니면 두뇌의 구성물인가를 알기 위해서만이라도 이 책은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장 '추한 개인들'에서는 인간-잡종에 속한 개인들에 초점을 맞췄다. 중세 시대 미녀가 된 야수, '추악한' 라그네르 부인부터 빅토리아시대 '세상에서 가장 추한 여인'으로 묘사됐던 줄리아 파스트라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들이 등장한다.

이 장에서는 추와 관련된 개념들이 어떻게 개인들을 낙인찍었는지를 살펴본다. 예술과 사회 영역에서 낙인찍힌 유

체들은 추의 계보학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두 번째 장 '추한 집단들'은 인종, 젠더, 색소염리디, 계급, 연령, 장애 등과 연계해 추의 문제를 바라본다. 단순히 집단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집단들 중심으로 벌어졌던 행위를 고찰한다. 저자는 여기에는 추한 것들을 속죄양 만들기, 식민화, 예로틱한 대상으로 만들기, 군사화, 범죄화, 상업화 등이 포함된다 고 본다.

"21세기 들어 이러한 '추한 것'들이 불편하게도 연대를 이룸에 따라 몇몇 범주들로부터는 '추함'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들 몇몇을 전유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추한 감각'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감각적 추함은 문화적 경계를 바퀴 놓고 치환을 통해 경험된다고 설명한다. "부패와 죽음이라는 자연 과정과 관련된 추함은 조롱받는 특징들 이상을 구현한다"고 덧붙인다.

저자는 '추'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한다.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한다. 문화와 예술의 소용돌이가 '추함' 요소들을 집어삼켜, 이제껏 생각되어 온 통념을 넘어 추를 진보적인 힘으로 만들 것일까? 현재 문화에서 '추'하다고 간주되는 요소들이 미래의 맥락에서는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을까? 또 하나 과연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답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추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까?

<서터·1만9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 소설가의 죽음과 그를 기억하는 다섯 여자 이야기



### 목요조곡

오나 리쿠 지음  
김정인 옮김

2005년 일본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서점 대상 수상하고 2017년에는 '꿀벌과 천둥'으로 나오키상과 서점대상을 수상했던 오나 리쿠가 '목요조곡'을 발간했다. '목요일의 모음곡'이라는 뜻의 제목은 목요일을 좋아했던 한 소설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목요일 같은 장소에 모인 다섯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천재 소설가 시게마츠 도키코가 자살한다. 4년 전 일이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네 명의 여자들 시즈코, 에리코, 나ومی, 츠카사와 도키코를 담당했던 편집자 에이코가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매년 모인 다. 도키코는 자신의 침실에서 독이 든 물을 먹고 자살했던 것이다. 당시 저택에 함께 있던 다섯 명의 여자들은 모두 도키코의 죽음에 의문을 품지만 유서가 발견되면서 의문은 흐지부지된다.

그러나 4년 후 저택에 모인 그녀들 앞으로 '후지시로 치히로'라는 사람에게서 꽃다발이 도착한다. 안에 들어 있는 카드에는 도키코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글이 적혀 있다. <북스토리·1만1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직업의 시대가 종말 고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직업의 종말

테일러 피어슨 지음  
방영호 옮김

전 세계적 교육 수준의 향상과 세계화, 노동 인력을 대체할 첨단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비약적 발전은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답이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게 한다. 학위의 가치는 낮아져 좋은 학위로 멋지고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는다는 것이 꿈이 되어가고, 직업적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직업의 시대가 종말

을 고하고 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 테일러 피어슨이 펴낸 '직업의 종말'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업 경력을 계획하는 것은 결국 좌절감만 안겨 주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기회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바로 앙트레프레너십, 즉 창업가 정신을 구현하라는 것이다.

<부키·1만50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